

세월호 겪고도...거꾸로 가는 해상치안

전남 해경출장소 두달새 19곳 폐쇄...30곳은 나홀로 근무

인력·장비 부족에 어선 빌려 출동 초기대응 부실 우려

해상 치안·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경비안전서가 도서·연안 해상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서·연안지역 출장소의 경우 해상 사고 발생 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3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도서·연안에 설치된 출장소 32개소 가운데 30곳이 나홀로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출장소의 경우 적게 24시간, 많게는 92시간까지 직원 1명이 도맡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안전서는 주민 수와 낚시꾼 등 관광객 현황 등을 고려해 전남 도서·연안 해상 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

지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1인 출장소에 머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세다.

출장소 근무자들은 해난구조 업무 뿐 아니라 유람선, 어선, 낚시배 등 선박 입출항 업무까지 맡고 있는 탓에 운항 전 안전 점검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서해 황금 해역'을 노리는 중국 어선들의 침범이 잦은 거제도도 '나홀로 출장소'로 운영되는데다, 보유 장비도 구명환 1개와 레스큐튜브 1개에 불과,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쉽지 않다.

또 이들 대부분의 출장소에는 해상 사고 발생 시 타고 나갈 구조정조차 보유하지 않아 직원들은 어민들의 어선을 빌려 타고 나가거나 해경 본부에서 출동할 때 까지 발을 구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30일 발생한 흥도 유람선 좌초 사고 당시 해경 경비정은 주민들의 자체 사고수습이 모두 끝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흥도 파출소 내 근무 직원은 구조정이 없어 11차리 민간 어선을 빌려타고 현장에 도착한 바 있다.

전남지역 32개 출장소 중 2곳만 연안구조장비인 구조정을 보유한 상태로, 나머지 출장소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접근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양경찰 해체' 이후 조직 개편으로 관광객 발걸음이 끊어질 않는 완도 보길도 출장소 근무 인력을 인근 노화 안전센터로 편입시키는 등 지난 2월부터 출장소 19곳을 폐쇄, 도서·연안 해상 사고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커지는 형편이다.

해경안전서는 안전센터를 거점형으로 운영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도서 지역 주민들은 긴급한 해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역민들은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출장소 직원들은 섬 주민들에게 수소문해 어선을 빌려 타고 나가 구조활동을 벌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의 유인도(432곳) 중 전남에만 68.52% 수준인 296곳이나 이르는 것을 감안,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구조역량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최일선 구조인력 확보는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일부 섬 주민들은 해경안전서에 맡길 수 없다며 자체 구조 활동을 위한 모의 훈련에 나서는 등 유람선 사고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을 정도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일선 현장에 배치할 구조·순찰정비 확충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며 "올해 일부 출장소와 안전센터에 장비가 보급될 예정으로 점차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호랑이 똥 구해 주오” 난리법석

광주 특효 잘못된 소문에 우치동물원 민원 붐몰

광주우치동물원은 최근 70대 중반의 민원인 A(여)씨로부터 한 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다. 호랑이 똥 2~3kg을 구할 수 없냐는 민원 내용이었다.

동물원 측이 “똥대지 퇴치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A씨는 “아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호랑이 똥이 금주·절주에 특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여 마시게 하려고 한다”며 사용처에 대해 설명했다.

호랑이 똥이 금주(禁酒) 또는 절주(節酒)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찾아온 호랑이 똥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호랑이 똥을 구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민원인들은 자식 또는 남편의 잦은 음주에 몸이 상하는 것을 우려, 호랑이 똥이 금주·절주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랑이 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대전동물원 등 수소문 끝에 우치동물원에 호랑이

가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직접 방문, 호랑이 똥 1~2kg씩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우치동물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동물원에서 호랑이 똥을 구해 불로 이물질 제거한 뒤 이를 달여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랑이 똥이 금주·절주에 효험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게 한의학계의 설명이다.

특히 예전엔 약재 구하기가 힘들어 민간요법으로 호랑이 똥을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엔 몸에 좋은 약재도 많은데, 굳이 효과도 없는 호랑이 똥까지 구해 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광주지역 한 한의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호랑이가 7마리 있는데, 하루평균 배설물이 약 1~2kg 정도 나온다. 똥대지 퇴치용 등 찾는 이들이 많아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원인들이 구해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투리땅에 생명 불어넣어요”

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어린이집 앞 자투리땅에서 북구청 소속 청년간부위원과 원생들이 꽃과 나무를 심어 버려진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북구는 도심 속 버려진 땅에 꽃과 나무를 심는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혜민기자 choi@

대형화재 막은 나주 요양병원의 선견지명

의무사항 아님에도 화재탐지기·스프링클러 4년전 설치

화재 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200명의 요양병원 환자들을 화재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도왔다.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감안, 요양병원측이 소방시설 확충에 힘을 쏟은 게 화재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13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1시50분께 나주시 노안면 J요양병원 4층 직원 휴게실(6.6㎡)에서 간담대에 설치된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화재탐지기로 인해 비상벨이 울렸고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9만9000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1년 45개 병실, 250개 규모(전체면적 4124.71㎡)의 병상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병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4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 설치했다.

양법철 병원 행정부장은 “5년 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포항 지역 노인요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며 “지난해 10월 나주소방서와 합동으로 벌여 숙지해놓은 소방합동훈련도 환자들을 대피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화재 당시 4층에 있던 환자 46명을 근무자 4명이 신속하게 대피시켰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학교 운동선수 구타·가혹행위 여전

광주교육청 초·중·고 전수조사

2.6% 심리적 폭력 당해

2.3% 신체적 고통 경험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폭력행위 지도자가 적발될 경우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운동부를 육성 중인 광주지역 135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1719명을 대상으로 (성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4명(2.6%)이 “심리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폭력은 심한 욕설이나 비난, 위협이나 협박,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 비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또 39명(2.3%)은 “심한 기압이나 열차려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손발이나 몸통이상을 이용한 구타와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도 각각 28명과 22명에 달했다.

구타·심리적 폭력·가혹행위·성희롱 모

두 초등학교가 전체 60~70%에 달해 초등운동부의 폭력실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전수조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가해자로 ‘코치’를 첫 손에 지목했고, 다음으로 선배, 동료, 기타 순이었다.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의 절반이 ‘선배’였고, 성희롱은 54.6%가 ‘동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횡수는 구타의 경우 ‘한 달에 1~2번’이 32.1%, ‘1주일에 1~2회’가 28.6%, ‘거의 매일’이 10.7%, ‘1주일에 3~4회’가 3.6%로 조사됐다. 심리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절반 가량이 ‘훈련 중’ 또는 ‘숙

소생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장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운동부실’(23.1%)이나 ‘사위장’(15.4%)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체육폭력 방지를 위해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문제지도자는 적발될 경우 해임 처분하고, 금품이나 향음, 회계처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도자들의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고, 지도자에 대한 학부모 부담 추가인건비를 양성화하는 등 단강책도 함께 내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관심**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62) 527-7600
010-7384-7800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 2층주택살면서 상가수익가능

매매가 3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완지구 모뎀/7평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전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완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2만

010-6670-9800
010-7384-7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학원, 사무실, 본사 적합)

※ 은행 중심가도 뒷 이면코너에 위치

- ① 평수 90평
- ② 층수 5층
- ③ 시설 리모델링, 학원 시설완비

주차장 무료 4대
주변 300대 확보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즉시 입주가능)

보증금 3천
월 150만

010-7384-7800
010-6832-97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②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6㎡) 감평가 6억6천, 최저가 3억6천
- ③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저가 2억1천5백
- ④ 남구 노대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3억2천
- ⑤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① 광산구 소촌동(2층근린상가) (토 121㎡, 건물 89㎡)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3억9천
- ②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 ③ 서구 쌍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저가 3억7천
- ④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저가 2억 1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2억9천
- ⑥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저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① 북구 일곡동 (1층 패자점)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저가 28억
- ② 북구 매곡동 (1층 조림상가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저가 11억
- ③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저가 3억9천
- ④ 동구 계림동 (3층) (토 59㎡, 건물 140㎡)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3억
- ⑤ 담양군 금성면 (3층편선건물)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저가 9억9천
- ⑥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역사장)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저가 88억
- ⑦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1억9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 ②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① 오전반 10시 ~ 11시 30분
② 오후반 7시 ~ 8시 30분
③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투~토목~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7천
- 2 담양군 금성면 (펜션)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저가 9억9천
- 3 광산구 수원동 4층(원룸)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062-527-7600
010-7384-7800